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 및 예측성 분석

서재성*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Abstract
- 참고문헌

I. 서론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신념, 가치, 객관성, 성격 및 다른 사람의 의견 등 복잡한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Kim, Park, Joo & Park, 2015, pp.195-200). 또한 사회 문화적 현상에 따라 영향을 받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Cash, 2002, p.38).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지각, 사고, 감정, 행동을 수렴하며 복잡하고 다면적 개념이지만 외모와 체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체 이미지의 복잡한 특징은 오래토록 논란이 되어 왔지만 신체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 특히, 신체불만이다(Tiggemann, Coutts & Clark, 2014, pp.197-207). 최근에서야 신체불만 완화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Andrew, Tiggemann & Clark, 2016, pp.34-42). 긍정 신체 이미지(positive body image)는 신체에 대한 애정, 수용, 독특성, 신체적 능력과 관련이 있고 신체불만의 상위 개념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다(Cox, French, Howe & Cole, 2017, pp.1-8). 긍정신체 이미지의 장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포츠팀은 긍정 신체 이미지가 신체 만족을 넘어 음식조절, 자존감, 자기 연민, 긍정적 건강 행동과 같이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와 결부되어 있음을 밝혔다(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성별에 따른 신체불만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남성 보다 여성에서 신체 불만이 더 높게 나타났다(Fredrickson & Roberts, 1997, pp.173-206).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지각하는 자아개념의 핵심적 요인은 외모로 해석 되었다(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실제 신체불만은 여성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여성들에게 체중은 규범적 불만(normative discontent)으로서 개념화 되었다(Walter & Yanko, 2018, pp.1-12). 나아가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대규모 문화 비교 연구

*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박사, s1805425@naver.com

에서 각국의 도시환경에 관계없이 여성의 신체불만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wami, Frederick, Aavik, Alcalay, Allik, Anderson & Zivcic-Becirevic, 2010, pp.309-325). 이와 같은 결과는 이상적인 마른 몸과 신체불만은 세계적 현상이며 매스 미디어의 영향이 커지는 세계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신체불만으로 인해 과도한 다이어트, 불규칙적인 식습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높아지는 우울증에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불만이 섭식장애의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Stice, 2002, pp.825-848).

어떤 특정한 문화내에서는 다른 하위문화(subcultural)¹⁾ 규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Stice, 2002, pp.825-848). 전문 공연 무용수 사회에서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독 극심한 압박감이 존재하는 하위문화가 있을 수 있다(Le Grange, Tibbs & Noakes, 1994, pp.369-376). 전문 공연 무용수는 말라야 하며 마른 몸을 유지해야한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더 우아하게 보이고 들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발레무용수는 발레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신체객관화와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urgess, Grogan & Burwitz, 2006, pp.57-66). 이러한 발레 무용수의 섭식장애 원인으로 신체상 장애와 신체불만은 발병 기전과 관련되어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 무용수는 부정적 신체 이미지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큰 특정 집단으로 나타났다(서재성, 정천규, 2013, pp.23-31).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와 섭식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 여성보다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Smolak, Murnen & Ruble, 2000, pp.825-848). 즉, 일부 여성 무용수는 외모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환경과 공연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고 평가받는 부담이 큰 무용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자기 객관화는 무용수에 있어 많은 부정적 신체 이미지 연구결과와 연결되어 있다(서재성, 정천규, 2013, pp.23-31). 자기 객관화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움직임을 관찰하고 비평할 수 있는 무용분야에서 특히 강조될 수 있다(Pettijohn & Price, 2006, pp.991-998). 선행연구에서 무용수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며 자기객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el, Jamieson, Soo & Gill, 2005, pp.35-47).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Smolak et al., 2000, pp.371-380). 비록 연구 대상의 모집단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용의 특성인 다양한 전공에 따라 각각의 무용은 미적 요구 사항만큼이나 하위문화 개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위문화의 예를 들면 여성실용 무용수는 또래 여성이나 대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가 있음을 발견했다(Swami & Tovée, 2009, pp.304-307). 현대 무용수는 일반여성에 비해 자기 객관화가 낮으며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wami & Tovée, 2009, pp.304-307). 실용무용은 발레와 같이 전통적인 무용형식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 많은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다. 무용은 마른 신체만을 이상적 신체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무용 전공에 따라 다양한 체형과 전 연령층의 무용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무용수는 공연과 발표의 이중적 부담감으로 인해 신체 이미지의 왜곡 위험이 높

1) 한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전체 문화(total culture)라 할 때, 그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의 문화를 하위문화라고 한다.

다(Pierce & Daleng, 1998, pp.769-770).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 무용수는 마른체형과 긴 팔 다리의 신체 이미지는미의 기준뿐 아니라 무용 공연에서 무용수가 갖추어야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 무용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로 인해 직업 무용수는 직업 안정의 두려움과 과도한 신체 이미지 걱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가수준 무용수의 무용참여 동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로 시작 하였지만 전문 무용 수준과 같이 신체 이미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ckard, Henderson & Wonderlich, 2004, pp.485-490). 신체의 미적 표현성을 조하는 여성 무용수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하다. 신체 이미지 유형(긍정 신체 이미지,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족)은 여성 무용수의 전략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이미지 속성과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 연구는 대부분 전공학생이나 전문 무용수를 대상으로 연구(Tiggemann et al., 2014, pp.197-207)되었으며 무용 수준에 따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Kim, Park et al., 2015, pp.195-200; Swami & Harris, 2012, pp. 39-52)에서 미흡하게 연구되었던 여성 무용수를 대상으로 무용수준(전문 수준/ 여가수준)과 전공(한국 무용, 발레, 실용무용)에 따른 신체 이미지(긍정 신체 이미지, 신체객관화, 신체 불만) 차이와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 여성 무용수²⁾는 서울, 경기, 전북의 대학 무용학과, 청년창업 국악/무용단체, 무용학원, 주민센터/문화센터의 교사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대한 구분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전문수준과 여가수준으로 나누었다(서재성, 2017, pp.39-52). 여가 수준은 무용학원, 주민센터, 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가수준 여성 무용수 연령은 19~61세(M=32.86, SD=16.74)의 범위로 무용 평균 경력은 3.8년(SD=2.04)이다. 전문수준 여성 무용수는 대학 무용전공 학생, 대학원생, 무용학원 원장 및 강사, 청년창업 국악/무용단체 교사로 연령 범위는 20~47세(M=28.47, SD=6.83)로 무용 평균경력은 14년(SD=8.52)이다. 연구대상자의 전공은 한국 무용(여가수준: 27명, 전문수준: 21명), 발레(여가수준: 38명, 전문수준: 18명), 실용무용(여가수준: 31명, 전문수준: 25명)을 대상으로 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 척도(긍정신체 이미지,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는 연구 목적에 맞게 번역 전문가 및 무용 전문가에 의해 수차례 번역/역 번역 과정과 문항/문장의 수정과정을 거쳐 사용되었다. 신체 이미지 척도의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생활무용수와 전문 무용수를 모두 함의.

첫째, 측정도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상이한 문화권에서 개발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Marsh, Marco & Abcy, 2002, pp.257-270).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 전문가에 의해 번역/역번역 과정을 수 차례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척도를 수정/보완 하였다. 둘째, 무용 안무 전문가/무용 박사과정 전문가에 의해 척도의 문장과 단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내용영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무용수에게 적합한 척도로 수정하였다. 셋째, 무용 전문가에 의해 완성된 척도는 여가 수준/전문수준의 무용수 각 10명에게 예비연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단어를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신체 이미지 척도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보하였다.

가. 긍정 신체 이미지 척도

긍정신체 이미지 척도는 Avalos, Tylka & Wood-Barcalow(2005, pp.285-297)가 개발한 신체 이미지 척도(Body Appreciation Scale: BAS)를 사용하였다. BAS는 단일요인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이다. BAS는 신체 수용, 신체 존중, 신체 감사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BAS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긍정 신체 이미지 척도로 사용되었다(Andrew, Tiggemann & Clark, 2014, pp.28-39; Andrew et al., 2016, pp.34-42).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S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또한 2주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한 결과 신뢰도(r)는 .69로 나타났다.

나. 신체객관화 척도

신체객관화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OBCS)는 McKinley & Hyde(1996, pp.181-195)가 개발했다. 신체객관화 척도는 3요인 24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객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체형 진단과 자기 신체객관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체 감시성 요인 8 문항을 측정하였다. 신체 감시성 요인은 Tiggemann et al.(2014, pp.197-207)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객관화 척도는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 pp.329-349)가 번안하고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2주간 간격을 두고 재검사한 결과 신뢰도(r)는 .71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다. 신체불만 척도

신체불만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자아관련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사용하였다. Brown, Cash & Mikulka(1990, pp.135-144)가 제작한 MBSRQ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나타낸다. 신체불만을 측정하기 위해 MBSRQ의 8개 하위 요인 중 신체 부분 만족도(MBSRQ-BASS)요인 9문항을 측정하였다.

MBSRQ-BASS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MBSRQ-BASS는 윤지현(2004, p.3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신뢰도는 .86로 확인되었으며 검사-재검사한 결과 신뢰도(r)는 .64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첫째, 연구자는 설문대상자의 단체에 연구 허락을 받고 설문날짜와 장소, 시간을 예약하였다. 둘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1인은 설문대상자이 있는 단체에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설문지작성기간은 2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4. 자료 처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무용 전공과 수준에 따른 무용 신체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2x2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성이 있을 경우 Scheffe's로 사후 검증을 하였다. 둘째,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의 예측성을 규명하고자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대한 신체 이미지의 판별성 검증은 판별계수와 분류표로 알아보았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와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있다.

1.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분석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긍정 신체이미지 차이

여성 무용수의 긍정신체 이미지에 대해 전공과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표 1>와 같이 여가수준은 한국무용(M=3.57)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발레(M=3.40), 실용무용(M=3.32)순서로 나타났다. 전문 수준은 한국무용(M=3.36), 발레(M=3.34), 실용무용(M=3.07)수준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여가 수준(M=3.43)이 전문 수준(M=3.24)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신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무용 전공과 수준에 따른 긍정 신체 이미지 기술통계

| 수 준 | 발레M(SD) | 한국 무용M(SD) | 실용무용M(SD) | 합계 |
|-------|-----------|------------|-----------|-----------|
| 여가 수준 | 3.40(.72) | 3.57(.64) | 3.32(.83) | 3.43(.55) |
| 전문 수준 | 3.34(.89) | 3.36(.52) | 3.07(.66) | 3.24(.61) |
| 합 계 | 3.37(.81) | 3.47(.58) | 3.20(.75) | |

〈표 2〉와 같이 전공과 수준에 따른 긍정 신체 이미지 차이는 전공[F(2, 154)=3.80, $p < .05$, ES = .071, Power = .610]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준에 따라서도[F(1, 154)=4.47, $p < .05$, ES = .062, Power = .757]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전공과 수준에 따른 긍정 신체 이미지 차이

| 구분 | SS | ms | F | Eta2 | power | Post-hoc |
|-------|-------|-------|-------|------|-------|----------|
| 전공 | 1.916 | .958 | 3.80* | .071 | .610 | 1)2,3 |
| 수준 | 1.127 | 1.127 | 4.47* | .062 | .757 | |
| 전공×수준 | .252 | .126 | .50 | .006 | .131 | |

* $p < .05$, 1. 한국무용, 2. 발레, 3. 실용무용

나.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객관화 차이

〈표 3〉과 같이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라 신체 객관화는 여가 수준에서는 발레가 가장 낮은 평균(M=3.33)을 보였으며 한국무용은 M=3.37, 실용무용은 M=3.38로 나타났다.

〈표 3〉 무용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객관화 기술통계

| 수준 | 발레M(SD) | 한국 무용M(SD) | 실용무용M(SD) | 합계 |
|-------|-----------|------------|-----------|-----------|
| 여가 수준 | 3.33(.55) | 3.37(.80) | 3.38(.68) | 3.36(.72) |
| 전문 수준 | 3.45(.67) | 3.65(.72) | 3.74(.85) | 3.63(.88) |
| 합계 | 3.39(.61) | 3.51(.76) | 3.56(.77) | |

여성 무용수의 여가 수준에서는 한국무용과 실용무용에서 평균차이가 작았지만 발레는 한국무용과 실용무용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전문수준에서는 실용무용 평균(M=3.74)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무용(M=3.65), 발레(M=3.45)순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신체 객관화는 여가수준(M=3.36)이 전문수준(M=3.63) 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표 4〉와 같이 무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54)=10.94, $p < .001$, ES = .066, Power = .908]. 여성 무용수의 신체 객관화는 여가 수준이 전문 수준 보다 신체 객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객관화 차이

| 구분 | SS | ms | F | Eta2 | power | Post-hoc |
|-------|-------|-------|----------|------|-------|----------|
| 전공 | .780 | .390 | 1.79 | .023 | .372 | |
| 수준 | 2.372 | 2.372 | 10.94*** | .066 | .908 | |
| 전공×수준 | .407 | .204 | .940 | .012 | .211 | |

*** $p < .001$ 1. 한국무용, 2. 발레, 3. 실용무용

다.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불만 차이

여성 무용수의 신체 불만을 전공과 수준에 따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이 여가 수준은 실용무용(M=3.04)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발레(M=3.14), 한국 무용(M=3.29)순으로 낮은 평균을 보

였다. 전문 수준 평균은 발레 M=3.34, 한국무용과 실용무용은 같은 평균(3.33)을 보였다. 전문수준 (M=3.36)이 여가수준(M=3.16 보다 높은 신체 불만 평균을 나타내었다.

〈표 5〉 무용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불만 기술통계

| 수준 | 발레M(SD) | 한국 무용M(SD) | 실용무용M(SD) | 합계 |
|-------|-----------|------------|-----------|-----------|
| 여가 수준 | 3.14(.58) | 3.29(.70) | 3.04(.69) | 3.16(.79) |
| 전문 수준 | 3.34(.67) | 3.33(.67) | 3.33(.65) | 3.34(.85) |
| 합계 | 3.24(.63) | 3.31(.69) | 3.19(.67) | |

〈표 6〉과 같이 여성 무용수의 신체 불만은 전공과 수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전공과 수준에 따른 신체 불만 차이

| 구분 | SS | ms | F | Eta2 | power | Post-hoc |
|-------|-------|-------|------|------|-------|----------|
| 전공 | .420 | .210 | .678 | .009 | .163 | |
| 수준 | 1.193 | 1.193 | 3.85 | .024 | .496 | |
| 전공×수준 | .388 | .194 | .626 | .008 | .153 | |

2.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 예측성 분석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이미지를 예측해 보았다. 여성 무용수가 지각하는 신체이미지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여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이미지의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해 Wilks' λ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표 7〉과 같다.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Wilks λ는 신체 객관화 .859, 신체 불만 .821, 긍정 신체 이미지 .787로 확인되었다.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 긍정 신체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게 구별해 주고 있다.

〈표 7〉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 예측분석 결과

| 예측 변인 | 단계 | 단계적 Wilks λ |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 단변량F(1, 160) |
|--------------------------|------------|-------------|----------------------|--------------|
| | | | 1 | |
| 신체 객관화 | 1 | .859*** | .562 | 13.26*** |
| 신체 불만 | 2 | .821*** | .451 | 10.32*** |
| 긍정 신체 이미지 | 3 | .787*** | -.344 | 13.81*** |
| 고유값 | | | 1.487 | |
| 정준상관 | | | .456 | |
| Wilks' λ | | | .792(df: 3) (p<.001) | |
| 사례의 정확분류 비율 : 70.4% | | | | |
| | 전문 수준 | | 여가 수준 | Total |
| 전문 수준 | 48명(73.8%) | | 17명(26.2%) | 65명 |
| 여가 수준 | 31명(32.0%) | | 66명(68.0%) | 97명 |
| BOX's M=24.705, (p=.001) | | | |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성 검증방법인 Wilks λ 가 유의했으며($p < .001$),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은 1.487로 나타나 기준값인 1보다 높았다. 집단 내 분산을 총 분산으로 나눈 값인 Wilks' λ 에 자유도를 고려한 $\chi^2(1)$ 값은 신체 불만족 13.26, 신체 불만족 10.32, 긍정 신체이미지 13.81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판별함수와 집단에 공유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는 .456으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판별 함수에 따르면 여성 무용수는 신체 이미지를 전문수준은 73.8%, 여가수준은 68.0%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70.4%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 긍정신체 이미지는 여성 무용수가 지각하는 신체 이미지로써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라 신체 이미지 차이와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 무용수의 긍정 신체 이미지는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 신체 이미지는 한국 무용, 발레, 실용무용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무용 수준에 따라서 여가 수준이 전문 수준보다 긍정 신체 이미지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긍정 신체 이미지에서 전문 수준 평균은 3.24(.61)로 나타나 호주 여성 전문 수준 무용수(Tiggemann et al., 2014, pp.197-207)의 긍정 신체 이미지 평균 3.70(.68)과 차이가 확인 되었다. 한국 여성 전문 무용수가 호주 전문 여성 무용수보다 긍정신체 이미지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전문 무용수의 환경과 전반적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여가수준 평균은 3.43(.55)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에서 무용을 하지 않은 여성 평균은 3.33(.70)으로 나타나 국내 여가 수준 무용수가 호주에서 무용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는 긍정 신체 이미지 평균이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Pollatou, Bakali, Theodorakis & Goudas(2010, pp.131-137)는 전문 수준 무용수와 아마추어 무용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긍정 신체 이미지 차이 연구에 여가 수준이 전문 수준 여성 무용수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역시 여가 수준 여성 무용수가 전문 수준 무용수보다 긍정 신체 이미지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Pollatou et al., 2010, pp.131-137)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 했을 때 긍정 신체 이미지는 여성 전문 무용수의 경우 국가별(Pollatou et al., 2010, pp.31-137; Swami & Harris, 2012, pp.39-52; Tiggemann et al., 2014, pp.197-207)로 차이가 있었고,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서는 전문 수준보다 여가 수준에서 긍정 신체 이미지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수준 무용수는 지나치게 날씬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 강한 중압감을 느끼며 높은 신체 객관화로 인해 부정적 신체 이미지와 체중을 신체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Pollatou et al., 2010, pp.131-137). 전문 무용수에게 있어 연습과 공연의 이중적 심리 부담감,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체형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신체 이미지를 왜곡할 위험(Swami & Harris, 2012, pp.39-52)이 높은 반면 여가수준의 경우 미적 체형, 건강, 유년기 시절 배우지 못한 무용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무용에 대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무용수의 수준별 신체 이미지 차이는 참여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여성 무용수는 관객에게 몸을 통해 춤을 보여주는 주체이고, 여가수준 무용수는 다양한 목적으로 참여 했으며 무용 경력이 짧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 무용수의 신체 객관화는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Langdon & Petracca (2010, pp.360-363)는 현대 무용수가 일반 여대생보다 신체 객관화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른 신체 객관화는 전문 수준 평균이 3.63(.88)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여성 전문 수준 무용수 평균은 3.92(1.10)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전문 수준 무용수는 호주(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여성 전문 수준 무용수보다 신체 객관화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수준 평균은 3.36(.72)으로 나타나 호주에서 무용을 하지 않은 여성평균4.55(1.13)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신체 객관화 평균이 낮을수록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의 평가부터 벗어나 스스로 신체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이다. 특히, 신체 객관화를 통해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신체에 대해 부정적 행동, 부정적 동기부여, 부정적 감정의 기제를 바탕으로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을 높인다(서재성, 정천규, 2013, pp.23-31).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체 객관화 평균은 한국 여성 전문 수준의 무용수보다 호주 여성 전문 무용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신체를 사회적 평가로부터 내면화하는 정도가 호주 여성 전문 무용수 보다 한국 여성 전문 무용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용수준에 따라 여성 전문 수준이 여가 수준 보다 높은 신체 객관화 평균을 보였다. 즉, 전문수준 무용수는 여가수준 무용수 보다 관객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평가 받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가수준 여성 무용수는 연습실과 주위 동료등 타인의 시선이 적고 건강과 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문 수준의 무용수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전문 무용수에게 신체 객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무대에서 보여 지는 공연을 통해 관객의 시각을 느끼며 스스로 높은 무용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체 객관화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라 신체 불만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ollatou et al. (2010, pp.131-137)의 연구는 무용 수준에 따라 신체 불만 차이는 없었지만 몸에 대한 만족도 및 체중에 대한 선입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 역시 Pollatou et al.(2010, pp.131-13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에 있어 신체 불만은 무용 연습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eiro, Novaes, Santos & Fernandes, 2016, pp.25-32). 무용수는 무용 연습양이 많다면 신체 불만은 낮아지며 연습양이 적다면 신체 불만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성 전문 수준 무용수가 선호하는 신체 이미지는 한국 여성 평균 신체 조건보다 좋지만 긴 팔다리와 더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주, 2009, pp.309-327). 무용은 신체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나타났지만, Burgess et al.(2006, pp.57-66)의 연구에서는 무용은 무용수에게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고 했다. 무용은 여가수준 무용수에게는 신체의 미적 표현과 신체 균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문 무용수에게 무용은 부정적 신체 이미지와 섭식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Ackard et al., 2004, pp.485-490).

한편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이미지를 예측한 결과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 긍정 신체 이미지순서로 예측되었다. 여성 무용수의 무용 수준에 따라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 긍정 신체 이미지가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를 판별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부정 신체 이미지(신체 객관화, 신체불만)와 긍정 신체 이미지는 서로 양 극단에 있지 않고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 무용수에 있어 긍정 신체이미지와 부정적 신체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여성 무용수의 긍정 신체 이미지는 자기 객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긍정 신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 객관화와 신체 불만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Tiggemann et al., 2014, pp.197-207). 여성 무용수에 있어 긍정 신체 이미지의 의미는 단순히 무용수로서 지각하는 신체적 만족감뿐 아니라 무용수의 심리적 기전 특히, 동기, 지속, 자존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무용수에게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을 완화하여 신체 불만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성 무용수가 지각하는 신체 이미지를 갖기 위해 높은 신체 불만과 신체 객관화로 인해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여성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는 신체조건, 심리-생리적 환경등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상호 유기적인 영향(서재성, 정천규, 2013, pp.23-31)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 신체 이미지를 낮추기 위한 자기 조절 전략이나 무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무용수의 전공과 수준에 따라 긍정 신체 이미지는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신체 이미지는 전공에 따라 한국 무용, 발레, 실용무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에 따라 여가 수준이 전문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무용수의 신체 객관화는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수준이 전문 수준보다 신체 객관화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 무용수 신체 불만은 전공과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신체 이미지는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 긍정신체 이미지 순서로 유의미 하게 예측되었다. 여성 무용수의 수준에 따라 무용수가 지각하는 신체 이미지는 긍정 신체 이미지와 신체 불만(신체 객관화)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성 무용수에 있어 긍정 신체이미지와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는 근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나 무용수의 수준, 환경, 연령, 참여 동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 연구는 무용수만의 독특한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무용수의 하위문화 연구를 통해 성별, 전공, 연령에 따라 신체 이미지의 심리적 속성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용 전공과 수준에 따라 신체 객관화 및 신체 불만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무용수의 긍정 신체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신체 객관화, 신체 불만을 낮출 수 있는 다면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성태제(2008).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Cash, T.F.(2002). *Cognitive 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ed. T.F. Cash and T. Pruzinsky, 38.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6(2): 329-349.
- 서재성(2017). 무용 수준에 따른 무용 심상차이와 무용 전공이 무용 심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예술학회』, 67(5): 39-52.
- 서재성, 정천규(2013). 여성 무용수의 의상 및 전공에 따른 신체 및 자가지각 차이. 『한국무용학회지』, 13(1): 23-31.
- 윤지현(2005). 여자 대학생의 신체불만, 외모가치 내재화,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주(2009). 직업 한국무용수의 신체이미지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 309-327.
- Ackard, D. M., Henderson, B., & Wonderlich, A. L.(2004).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dance participation and adult disordered eat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 485-490.
- Andrew, R., Tiggemann, M., & Clark, L.(2016). Predicting body appreciation in young women: An integrated model of positive body image. *Body Image*, 18: 34-42.
- Andrew, R., Tiggemann, M., & Clark, L.(2014). Positive body image and young women' health: Implications for sun protection, cancer screening, weight loss and alcohol consumption behaviour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1): 28-39.
- Avalos, L., Tylka, T., & Wood-Barcalow, N.(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 285-297.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135-144.
- Burgess, C., Crogan, S., & Burwitz, L.(2006). Effects of a 6-week aerobic dance intervention on body image and physical self-perceptions in adolescent girls. *Body Image*, 3(1): 57-66.
- Cox, A. E., French, S. U., Howe, H. S., & Cole, A. N.(2017). A pilot yog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o promote positive body image. *Body Image*, 23: 1-8.
- Fredrickson, B. L., & Roberts, T.(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Kim, J. Y., Park, H. J., Joo, H. C., & Park, I. S.(2015). A Study on Body Image Perceiv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in Kore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5: 195-200.

- Langdon, S., & Petracca, G.(2010). Tiny dancer: Body image and dancer identity in female modern dancers. *Body Image*, 7: 360-363.
- Le Grange, D., Tibbs, J., & Noakes, T.(1994). Implications of a diagnosis of anorexia nervosa in a ballet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5: 369-376.
- Marsh, H., Marco, I. T., & Abçý, F. H. (2002).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 in Australia, Spain, and Turke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3: 257-270.
- McKinley, N. M., & Hyde, J. S.(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195.
- Monteiro, L., Novaes, J. S., Santos, M. L., & Fernandes, H. M.(2016). Body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Female Students Aged 9-15: The Effects of Age, Family Income, Body Mass Index Levels and Dance Practice. *Journal of Human Kinetics*, 29(43): 25-32.
- Pellizzer, M., Tiggemann, M., & Clark, L.(2016). Enjoyment of Sexualisation and Positive Body Image in Recreational Pole Dancers and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74: 35-45.
- Pettijohn, T. F., & Price, B. R.(2006). The Effect of Ballet Dance Att ire on Body and Self-Perceptions of Female Dance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8): 991-998.
- Pierce, E. F., & Daleng, M. L.(1998). Distortion of body image among elite female dancer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7(3), 769-770.
- Pollatou, E., Bakali, N., Theodorakis, Y., & Goudas, M.(2010). Body image in female professional and amateur dancer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1(2): 131-137.
- Reel, J. J., Jamieson, K. M., Hoo, S, S., & Gill, D. L.(2005). Femininity to the extreme: Body image concerns among college female dancers. *Women i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14: 35-47.
- Ringham, R., Klump, K., Kaye, W., Stone, D., Libman, S., Stowe, S., & Marcus, M.(2006).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ballet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9: 503-508.
- Smolak, L., Murnen, S. K., & Ruble, A. E.(2000). Female athletes and eating problems: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371-380.
- Stice, E.(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848.
- Swami, V., & Tovée, M. J.(2009). A comparison of actual-weight discrepancy, body appreciation, and media influence between street-dancers and non-dancers. *Body Image*, 6: 304-307.
- Swami, V., Frederick, D. A., Aavik, T., Alcalay, L., Allik, J., Anderson, D., & Zivcic-Becirevic, I.(2010). The attractive female body weight and female body dissatisfaction in 26 countries across 10 world regions: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Body Project I.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309-325.

Swami, V., & Harris, A, S.(2012). Dancing Toward Positive Body Image? Examining Body-Related Constructs with Ballet and Contemporary Dancers at Different Levels.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34: 39-52.

Tiggemann, M., Coutts, E., & Clark, L.(2014). Belly Dance as an Embodying Activity?: A Test of the Embodiment Model of Positive Body Image. *Sex Roles*, 71: 197-207.

Walter, O., & Yanko, S.(2018). New observations on the influence of dance on body image and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5: 1-12.

논문투고일 2018. 05. 13

심사일 2018. 05. 20

심사완료일 2018. 06. 12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Body Imag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Female Dancers and Predictability of Them

Seo Jae Sung

Ph.D, Physic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body images (Positive body imag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dissatisfaction) according to female dancers' levels of dance and major and to predict the body images according to their levels. The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48 Korean dancers, 56 ballerinas, and 56 practical dancers according to their majors, and 96 dancers for leisure and 64 professional dancers according to the levels of dance. They were investigated, by the positive body image scale,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and the body dissatisfaction scal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emale dancers' body images according to their major and leve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da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body dis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ajor and level of dance. Lastly, the prediction of body imag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female dancers was the highest in their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llowed by body dissatisfaction and positive body image.

Keywords: Female Dancers(여성 무용수), Positive Body Image(긍정 신체 이미지), Self-Objectification(신체 객관화), Body Dissatisfaction(신체 불만), Prediction(예측)